

보도	2025.5.19.(월) 조간	배포	2025.5.16.(금)
----	------------------	----	---------------

담당부서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금융중심지지원팀	책임자	국 장	박성주	(02-3145-7890)
		담당자	팀 장	최윤선	(02-3145-7901)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초청 세미나 개최

### - 주 요 내 용 -

-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5.5.16.(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을 초청하여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 금번 세미나는 최근 도입된 인도네시아의 금융복합그룹 규제에 대한 현지 진출 한국 금융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고
  -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외 국내 금융업 협회 및 29개 금융회사의 글로벌 사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
  - 참석자들은 인도네시아 감독당국 담당자로부터 현지 규제에 대한 설명을 직접 청취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

###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초청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5.5.16.(금) 10:00,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 발제 : [1] 인도네시아의 금융복합그룹 규제체계(인도네시아 OJK)  
[2]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KB금융그룹)
- ☑ 주요 참석자 : (금감원) 김병철 부원장, 국제업무국장 등  
(인도네시아 OJK) 통합감독·인가총괄국장 등  
(업계) 금융협회,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금융회사 담당자 등

## 1

## 개최 배경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세계 4위의 인구(2.8억명)에 기반한 내수시장 등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여 한국 기업들의 현지 투자 및 교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로서

○ 금융 부문에서도 30개 금융회사(34개 점포)가 진출\*하는 등 한국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수 기준 상위 4개국('24말 기준, 점포 수) : 미국(62), 베트남(55), 중국(45), 인도네시아(34)

□ 최근 인도네시아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그룹 감독에 관한 새로운 규제체제\*를 도입하였고 이는 현지 진출 한국 금융회사에도 적용 예정

\* OJK Regulation on Financial Conglomerate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POJK Number 30 Year 2024)

※ 인도네시아 금융복합그룹 규제 개요

- ① (배경)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규제·감독의 효율·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복합그룹의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등을 개선하고자 마련
- ② (금융복합그룹의 지정기준) ①소속 금융회사의 총자산 IDR100조 이상 AND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2개 금융회사 이상
  - ②소속 금융회사의 총자산 IDR20조~100조 AND 셋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3개 금융회사 이상
  - ③OJK가 지정하는 경우(예 : 영업활동의 복잡성,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 ③ (주요 내용) ①지주회사 설립 의무 및 지주회사 유형 및 역할, ②소속 회사의 범위, ③지분구조 요건, ④그룹 전략리스크 관리, ⑤거버넌스(이사회 구성, 적격성 심사 등), ⑥상호출자 제한 등을 규정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OJK는 그동안 양 기관 간 구축해 온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한국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의

## 2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김병철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인도네시아 현지의 감독제도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방문해 준 인도네시아 감독당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 이번 세미나가 한국 금융회사들이 현지 법규와 제도를 이해하고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또한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 이어서 인도네시아 OJK 측은 발표를 통해
  - 최근 도입된 복합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주요 내용<sup>\*</sup>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어서 국내 금융회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규제이행 방안<sup>\*</sup>에 관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였음

<sup>\*</sup> 규제도입 취지, 적용 대상, 규제 이행 방법 및 시기 등
- 한편, 동 세미나에서 KB금융그룹이 인도네시아 진출 사례 및 영업 현황 등을 발표하며 현지 진출 경험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음

## 3

## 평가 및 계획

- 금번 초청 세미나에는 국내 금융업 협회 및 29개 금융회사의 글로벌 사업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 인도네시아 현지의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한국 금융회사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 및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인도네시아에서 30개 국내 금융회사가 34개 현지점포를 운영 중
- 진출 형태는 현지법인 30개, 사무소 4개

**【 인도네시아 진출 국내 금융회사 현황 】**

업종	진출형태	세부현황(가나다順)
은행(9)	현지법인(7)	기업, 산업, 수출입, 신한, 우리, 하나, KB
	사무소(2)	산업, 수출입
보험(6)	현지법인(4)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손해보험
	사무소(2)	서울보증보험, DB손해보험
금투(10)	현지법인(10)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2), 한국투자 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자산운용, KB증권, NH투자증권
여전(9)	현지법인(9)	롯데캐피탈,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 캐피탈, 현대캐피탈(2), KB국민카드, KB캐피탈

※ 국내 진입 인도네시아 금융회사로는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지점)이 유일